## 경주 향토미술 산증인 '조희수'를 회고하다

### 경주 솔거미술관서 초대전
###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


조희수 작가의 1970년 作 '석굴암 11면 관음보살'

경주 지역 근·현대 미술의 산증인 조희수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가 열린다.

경주엑스포는 오는 9월 25일까지 '지역원로작가 초대전 - 조희수전'을 경주 솔거미술관 제1, 2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조희수 작가는 남한 최초의 미술대학인 경주예술학교 1회 졸업생으로는 유일하게 생존해있는 작가다. 그는 1948년 경주예술학교 졸업 후 1954년부터 중앙화단에서 활동하다가 1980년 낙향하여 경주 남산자락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낙향한 이후에는 주로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화폭에 담았으며 모든 그림을 현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을 그리기 위해 3년 동안 양동마을에서 지내기도 했으며, 안동 하회마을을 그리기 위해 4년 동안 안동을 오고갔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 양동마을, 하회마을 등의 풍경을 담은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경주엑스포는 "(사)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원로작가 초대전을 마련해 경주미술사의 자료 수집과 미술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신진 작가들이 펼치는 불교적 사유 '향연'


강현정 작가의 '어해화(漁海花)'. 다양한 민속적 상징체계들이 내재됐다.

###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 이지민·강현정 작가 전시회

젊음은 투박하지만, 자체만으로 빛이 난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미술에 뜻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젊은 신진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8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지민·강현정 작가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각각 '99%'·'행복을 탐하다-Eternal Essence'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신진작가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지민 작가의 '99%' 전시회에서는 현대적 기법으로 전통회화의 맥을 이어가는 그만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25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회화를 전공한 그는 학교에서 익힌 불화, 궁중장식화, 인물화 등의 전통회화 구성을 토대로 비단이나 석채, 금박 등의 천연안료 재료들을 엮어가는 과정, 또 비단을 염색하는 작업부터, 비단매기, 교반수 칠 등의 예민한 작업들도 이제 제법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 작품의 폭이 넓다.

특히 이번 작품 중 '석조전'은 덕수궁 석조전 내부에서 인상 받았던 곳을 비단 위에 금박과 고분기법(안료를 쌓아 올려 입체감을 주는 전통회화기법)을 사용한 화려한 표현이 돋보인다. '경복궁의 기억' 연작은 표현의 절제와 고졸한 색감이 더 풍부하게 다가오는 창조적 재현으로 공감을 불러온다.


이지민 작가의 '경복궁의 기억)'. 두 신진작가의 전시회는 8월 15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공모 사업 일환 개최**

**8월 15일까지 전시 진행**

**참여 작가 모두 첫 개인전**

**전통과 서양 미술 안에서**

**불교적 사유 표현해 '눈길'**

전시 주제를 '99%'로 잡은 이유도 있다. 이지민 작가는 전통 재료 중 금박을 다루기를 즐긴다. 변화하지 않는 진금(眞金)처럼 작품활동을 가겠다는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지민 작가는 "생애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 제목을 99%라고 한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회화재료로서의 진금을 뜻한다"면서도 "작업 과정 중 느꼈던 99%의 부족함과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99%라는 솔직 담백한 다짐의 의미"라고 했다.

강현정 작가는 서양화로 시작해 불교미술로 폭을 넓혔다. 작품의 궤적도 서양화와 불교 미술을 넘나든다. 특히 실험적인 상징 표현들이 인상 깊다.

강현정 작가는 주로 불교적 소재와 민화, 궁궐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세계에 주목하면서 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작가에게 있어 상징의 이미지는 곧 행복을 꿈꾸는 공간으로 그 내면에는 한국의 전통 상징인 불교적 사유가 '활발발(活潑潑)'함을 알 수 있다.

'행복을 탐하다-Eternal Essence'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상징체계가 담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작품 '어해화(漁海花)'에서 친숙한 전통의 이미지와 주관적 상징표현들이 유기적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춘하추동' 연작에서는 공간과 색감의 조화로운 미장센이 돋보인다.

다양한 상징체계에 대해 강현정 작가는 "종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의 속성임을 깨닫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종교인 것 같다"고 말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 KTX서 만나는 BBS 프로그램들

### 8월 6일부터 사찰음식 영상 제공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의 다양한 콘텐츠를 KTX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BBS불교방송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자연의 미를 널리 알리고,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오는 8월 6일부터 KTX에 제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KTX에 제공되는 BBS불교방송의 영상 콘텐츠는 우리나라 대표사찰을 중심으로 자연풍경을 담은 '산사의 미'와 전국 사찰에서 내려오는 설화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찰 고유 음식을 소개하는 '사찰음식'이다.

BBS불교방송은 "앞으로 산사 또는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자연풍경을 담은 〈산따라 물따라〉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불복장에 담긴 민중의 발원과 염원들

### 대구博, 보성선원 불복장 테마展

### 10월 23일까지 특별전시실서
### 후령통·전적 등 1백여 점 전시

대구 달서구 보성선원에는 목조석가삼존불상이 있다. 본래 거창 견암사에서 조성됐으나 한국전쟁 시기에 현재의 보성선원으로 이운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0년 보성선원은 개금불사를 진행하면서 삼존불의 복장을 개방해 복장물을 확인했고, 여기서 놀라울 만한 불복장 유물들이 나왔다. 특히 발원문과 후령통, 다양한 경전류 들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 같은 불상·복장물과 복장전적은 보물 제1801호, 제1802호로 2013년 지정되기도 했다.

대구 보성선원의 부처님의 불복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테마전 '대구 보성선원 석가삼존불상- 불복장 발원과 염원의 세계'를 전시한다. 국립박물관이 사찰 유물을 단독으로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대구 보성선원의 성보 문화재 가지는 역사적 위치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대구 보성선원 석가삼존불상 복장물들. 2010년 개금불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삼존불 불복장 테마전시회를 개최한다.

실제, 보물로 지정된 2건의 문화재들은 그 가치가 높다. 보물 제1801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은 삼존상과 함께 복장후령통(腹藏候鈴筒, 부처의 상징물을 넣은 통), 발원문이 남아 있어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 발원문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의 정확한 제작 시기, 사찰, 제작자 등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의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802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은 조선 전기에 펴낸 책들이다. 완결성과 희귀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이 중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5'는 1461년(세조 7년)에 을해자(乙亥字, 15세기에 주조된 조선시대의 한글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실물로 남아 있는 활자 중 가장 오래됐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1440년(세종 22년)에 가평 화악산 영제암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했다.

불복장 문화재 10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장 전적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더욱 눈길을 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복장은 중생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의 세계이자 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불교의 은밀한 의식"이라며 "이번 테마전시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염원과 복장의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3)768-605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